

# 북스

Books

## 단원·혜원 그림속에서 조선 풍속을 읽다

### 조선풍속사 1·2·3

강명관 지음

쌍꺼머리, 대장간, 씨름, 무동, 서당, 주막, 길 가는 여인 훑쳐보기..... 사실 단원풍속 도첩은 우리에게 낯익은 동시에 낯설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최근에는 광고에까지 두루 쓰이고 있어 익숙한 듯하지만 정작 그림이 무엇을 그렸는지, 그림 속 물건들이 무엇인지 파고들면 생소하기 그지없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뒷골목 풍경' '책벌레들, 조선을 만나다'를 썼던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의 '조선풍속사' 시리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풍속화를 읽었다고 해서 단순히 '조선시대 백성의 삶을 묘사한 작품에서 흥과 해학을 느낄 수 있다'는 감상으로 가득 찬 책으로 본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원의 '씨름'을 보자. 단원이 그린 씨름은 요즘 씨름과 달리 모두 살바를 매지 않고 있다. 자세히 보면 앞쪽의 사내는 오른손 팔뚝에 바를 감고 상대의 왼쪽 허벅다리에도 감고 있을 뿐이고, 허리에는 바를 매지 않고 있다. 씨름도 여러 종류가 있다. 오른씨름·왼씨름·띠씨름·바씨름이 그것이다. 요즘하는 씨름이 왼씨름(대한씨름협회에서는 모든 씨름을 왼씨름 하나로 통일했다)이라면 그림에서 씨름은 허리에 바를 매지 않고 하는 바씨름이다.

저자는 풍속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그림의 오류도 지적한다. 오른쪽 아래의 두 사람은 어른이고 하나는 더뭉머리 소년인데, 둘 다 입을 벌리고 탄성을 지른다. 왼팔을 뒤로 내밀어 땅에 대고 몸을 지탱하고 있는 사내는 오른손과 왼손이 반대로 그려져 있다.

저자는 또 김홍도의 '타자'를 읽으면서 모두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데 혼자 서무룩한 왼쪽 위의 남자와 사내와 혼자 한가로이 누워 있는 지주를 대비해 불평 등한 사회를 비꼬는 민중적 시각도 드러낸다.

"경작하는 사람만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양반은 경작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해괴하다"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내세우며 "인류를 지금껏 살려온 농민과 농촌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하고 묻는다.

김홍도와 신윤복에만 관심을 묶은 지금까지의 풍속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난 2권도 주목된다. 특히 1권에서도 단원 그림의 비교 상대로 많이 수록된 기산의 그림은 작품성은 떨어지지만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단원풍속도첩 '씨름'

기산의 그림 '옛 파는 아이'에서 여장수의 가위가 적어도 19세기 말에는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예쁜 강아지와 아이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그림을 보며 개 백정의 이야기와 다양한 개고지 조리법을 소개하는 등 저자는 풍속사와 사회사, 음악사, 미술사를 아우르는 지적 편력을 펼친다.

'조선풍속사 3'은 지난 2001년 출간된 혜원 그림을 분석한 책의 개정판이다. 소복을 입은 양반과 과부가 개의 짝짓기를 감상하면서 배시시 웃고, 그 옆에선 똥통이 만방향 듯 마담의 무릎을 꼬집는다. 양반가의 젊은 사방님이 후원에서 젊은 종년의 손목을 끌고 희롱하며, 고요한 한밤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여인네의 허리를 휘어 안고 있다. 기존의 내용을 살을 덧붙이고 도판을 추가해 깊이를 더했다. (푸른역사·1만8000~2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80년대 포크 가수가 쓴 '아이들 위한 노래창고'

1980년대 중반 포크 그룹 '노래마을'을 이끌며 '나이 서른에 우린'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줄 될 수 있다면' 등의 노래를 발표한 가수이자 작곡가 백창우 씨가 아동문학가 권정생과 이우덕, 임길택의 시에 곡을 붙여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1·2·3'권을 펴냈다.



새로 만든 노래까지 모두 112 곡을 수록했으며 시와 악보가 담긴 책 한 권마다 음반 2장씩이 들어 있다. 한 곡 한 곡이 모두 두 아이들 마음을 담아 만든, 아이들을 위한 노래이다.

음반 녹음에는 그동안 백씨와 음악을 함께해 온 어린이 노래패 '굴렁쇠 아이들'이 참여했다. (보리·각 권 2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올빼미의 없음

배수아 지음

낯선 감각의 언어와 이미지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여 여운 작가 배수아의 새 소설집 '올빼미의 없음'이 출간됐다. 창작집으로는 '홀'(2006년) 이후 4년 만에 낸 것으로, 8편의 중단편이 수록됐다.

작가는 이번에도 기존 소설의 형식을 뒤엎고 무의식의 영역을 파고든다. 줄거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흐름 속에 화자의 기억이나 꿈 등 몽환적인 요소가 소설의 중심이 된다.

'양'의 첫눈은 주인공 '양'이 얼굴도 희미한 오래 전 연인에게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한다. 그러나 소설은 양과 그녀의 기억이나 두 사람



### 몽환적 문체로 죽음을 사색하다

의 만남을 다루지 않고 양이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어느 호숫가에서 겨울을 보내는 이야기로 흘러간다. 양은 그들을 어느 겨울 한 파티에서 만난 남녀라고 생각하면서 그 겨울의 첫눈 오던 풍경을 되새긴다.

'복역'은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다뤘다. 주인공은 몇 달 전 한 기차역에서 헤어져 여자를 떠올린다.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는 그의 회상엔 실제 일어난 일과 내심 바랐던 일-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차에 올라타고 싶은 욕구가 뒤섞여 있다. 사랑을 스스로 의연해버린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찬찬히 뒤지면서 소설은 그의 의식 심층에 자리한 정신적 내상을 드러낸다.

'나'의 죽음에 대한 '나'의 애도를 담은 표제작 '올빼미의 없음', 주인공인 작가 '나'와 비평가인 '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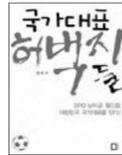
꿈과 글쓰기를 주제로 논하는 '올빼미', 최근작인 '무중' 등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사색이 꿈과 죽음의 세계와 어우러진다. 이는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열망과 사색을 담은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로도 읽힌다.

선명하고 일관된 서사를 해체하면서 언어와 정신에 대한 탐색을 한층 진전 시키고 꿈과 환상의 요소를 참가하는 '배수아식 글쓰기'는 이번에도 여전하다.

이야기보다는 사유가 도드라지는, 때론 한 문장이 책 한 쪽을 넘어설 만큼 길고 유려한 문장들은 "배수아 소설은 작가의 이름을 가리고 봐도 알 수 있다"는 평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 외 '배리 거리의 잠없는 입맞춤', '어느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왜일까', '밤이 염세적이다' 등의 작품도 함께 실렸다. (창비·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책



▲국가대표 허벅지들=2010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이야기. 축구 비전문가인 작가 출신 아줌마가 쓴 축구 에세이다. 박지성·박주영·이운재·차두리 등 축구선수 25명의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작가 출신인 저자 특유의 시선으로 선수들을 분석하고 응원한다. 허정무 감독에 대한 얘기도 실렸다. (포럼·1만1000원)

▲책읽는 청춘에게=정신분석 전문의 김해남, 드라마 작가 노희경,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프리랜서 방송인 유정아 등 젊은이들이 멘토로 꼽고 있는 명사 21명이 인터뷰를 통해 인생에 대해 들려준다. 또한 그들에게서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을 추천받아 소개했다. (북로그림퍼니·1만2000원)

▲장자=1983년 국내 최초로 장자를 완역한 김학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글세대를 위해 어려운 한자 표현을 한글로 쉽게 풀어쓴 장자 완역본이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 천무(錢穆)의 장자 해석서인 '장자찬전(莊子纂箋)'을 비롯해 10여가지 주해서를 참조했다. (연암서가·3만5000원)



▲잠자는 인형='링컨 라임' 시리즈로 인기를 모은 제프리 디버의 신작 추리소설. '링컨 라임' 일곱 번째 권 '폴드 문'에 등장했던 여성 수사관 캐트린 댄스를 주역으로 내세운 새로운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 능한 여성수사관 캐트린 댄스가 일가각 속해범으로부터 수감되었다가 탈출한 '악마의 살인마' 다니엘 켈을 추적하는데... (비제·1만5000원)



▲자유방목 아이들='만들어진 공포'에서 벗어난 자유롭게 아이 키우기='자유방목 아이들'의 설립자이자 작가인 리오어 스키네이치가 쓴 신개념 육아교육서. 저자는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면, 아이를 잡은 손을 기꺼워 놓아라"고 말하며 "아이는 아이답게 뛰어놀게 할때만이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자립심을 갖춘 어른으로 자라난다"고 주장한다. (양철북·1만2000원)

▲예술의 강 도너우='문명의 강' 시리즈 첫 번째 권. 도나우 강을 따라 유럽 대륙 곳곳을 여행하면서 각 도시의 변형과 쇠락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널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가들의 생애와 예술작품을 살폈다. 음악의 도시 빈, 문학의 도시 프라하, 부다페스트, 발칸반도 등을 다뤘다. (신수아·1만5000원)



▲소비의 대전환=소비사회주의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로=2010년 지구환경보고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을 문화의 뿌리에서 찾았다. 우리 생활과 의식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삶과 지구 자원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어온 소비주의 문화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한다. (도요새·1만9800원)



▲황금의 시대=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한 황금의 역사를 더듬으며 인류 문명사에서 때로는 대격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결과기도 한 황금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폭넓게 조망했다. 인류가 언제부터 황금을 숭배하고 갈망하기 시작했는지 동서양의 역사와 문명을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보여준다. (푸름북스·1만500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223-1772 ☎ 011-802-2532  
(부동산 전문상담, 대인동 소비자센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업오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정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FAX) 383-5221 ☎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지형 1층)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매매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산동	(22,000평)	전답	10만원
나산산포	(116,300평)	조경	36만원
동림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현덕지구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동림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5억	6,500만원	100억원
현덕지구	4억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경리하십시오.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금당 공인중개사**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 감정이 이화**

- 병원건물, 상무지구 중심지, 대지 1010㎡(305평) 건물 2996㎡ (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3천 300원
- 동구 6차선도로와 3차선 도로 코너 대지 1948㎡(589평) 건물 2109㎡(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300원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지가 9억 3천 300원 2억 4천
- 마곡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3천 300원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점 275㎡(83평) 1억 5천
- 충장로5가 5층 건물 대지 332㎡ 156 공시지가 3억 300만 500원
- 1442평 경매감정가 18억 300만 600원
- 금남로 참언교로 뒤 주택 영업을 위한 공사가 매도 8400 만
- 순천시 대지 170 건물 243 공시지가 9억 300만 500원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물 206평 6층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6건평 173 대초 3억 300만 500원

**■ 매도·교환**

- 4층 상가주택 신안동 4차선 도로변 대지 184㎡(56평) 건물 461㎡(138평) 대초 1억 300만 500원
- 진원주택지 송산유원지 부근 196평 사찰도 포함 8800만원
- 목욕탕·모델·상가 매곡동 대지 643㎡(195평) 건물 941평 전세 2억 300만 670 대초 10억 1500만 500원
- 나내지 흑석 사거리 일곽동 중급 아파트 입주 준주거지 472㎡(143평) 공시지가 4억 300만 500원
- 화순 도곡원전 관리지역 894평 교환가능 3억 200만
- 하남2지구 대지 62평과 일곽동 준주거지 265평을 합하여 건물과 교환가능 5억 300만
- 매월동 서광주역 부근 2314㎡(702평) 8억 200만
- 광산구 우산동 2220평 하지장동 다동 52억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187평 공시지가 5억 700만 600원
- 송정리 소년동 지구단위지역 2중주거지 403평 4억
- 별장, 화순산 사평부근 대지 288 건물 32평 8500만원

**■ 주택·아파트·임대**

- 아파트 연세동 현대 201㎡ 대초 1억 300만 500원
- 주택 화순 능주면 소재지 337㎡(101평) 2400만원
- 금남로 5가 사거리 중급 299평 건물 2층, 3층, 4층을 분리하거나 합하여 병·의원 임대, 조건은 협의함.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1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권리사항/월별	대표이사 010-7571-7525	속박/임대/상가	김대성이사 010-8033-0114	중정/모지	정자이사 010-5879-0005	
소매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보성동	대지208,238㎡	5299㎡	8950원	8800㎡	19억	다중공공
광안동	대지30,426㎡	994㎡	3940원	4800㎡	2800㎡	2800㎡
광안동	대지242,203㎡	1991㎡	10970원	3930㎡	4840㎡	2800㎡
광안동	대지2,214㎡	792㎡	4억	4000㎡	5800㎡	2800㎡
광안동	대지42,296㎡	22㎡	15940원	2940㎡	5800㎡	2800㎡
광안동	대지2,210㎡	4990㎡	19940원	4990㎡	5800㎡	2800㎡
광안동	대지2,210㎡	1099㎡	9940원	4990㎡	5800㎡	2800㎡
광안동	대지2,210㎡	1799㎡	7990원	6800㎡	2800㎡	2800㎡
광안동	대지2,210㎡	3990㎡	19900원	11400㎡	2800㎡	2800㎡
광안동	대지2,210㎡	200㎡	45940원	45940원	2800㎡	2800㎡
광안동	대지2,210㎡	1099㎡	10990원	4800㎡	2800㎡	2800㎡
광안동	대지2,210㎡	280㎡	1180원	대지4940㎡	2800㎡	2800㎡

**아파트/월과 임대료현물우에서 011-684-3886**

소매지	대지/건물	평	용도	건평	최저가	비고
광안동	대지297,238㎡	25	17/8	1950원	1970원	1970원
광안동	대지36,2151	25	22/8	1920원	6400원	2800㎡
마곡동	상무지구	35	15/8	3920원	292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47	15/8	4950원	391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15	14/2	6200원	520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80	15/8	1990원	199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32	17/17	1950원	194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24	15/2	1940원	990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52	10/2	3900원	290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32	22/22	1950원	990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38	15/2	1950원	7900원	2800㎡
광안동	광안동	48	14/11	2900원	1990원	2800㎡

**주목/제개매 김대성이사 010-8033-0114**

소매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광안동	대지297,238㎡	7200㎡	4900원	다중공공
광안동	대지36,2151	1940원	6800원	2800㎡
광안동	대지36,2151	1950원	8800원	2800㎡
광안동	대지36,2151	1950원	9900원	2800㎡
광안동	대지36,2151	2950원	2950원	2800㎡
광안동	대지36,2151	2950원	2950원	2800㎡
광안동	대지36,2151	2950원	2950원	2800㎡
광안동	대지36,2151	2950원	2950원	2800㎡
광안동	대지36,2151	2950원	2950원	2800㎡
광안동	대지36,2151	2950원	2950원	2800㎡

**권리주택 김대성이사 011-684-3886**

소매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광안동	대지2,210㎡	2920㎡	1990원	3800㎡
광안동	대지2,210㎡	3900원	3900원	4800㎡
광안동	대지2,210㎡	4900원	4900원	1800㎡
광안동	대지2,210㎡	2920원	1990원	3800㎡
광안동	대지2,210㎡	2920원	1990원	3800㎡
광안동	대지2,210㎡	2920원	1990원	3800㎡
광안동	대지2,210㎡	2920원	1990원	3800㎡
광안동	대지2,210㎡	2920원	1990원	3800㎡
광안동	대지2,210㎡	2920원	1990원	3800㎡
광안동	대지2,210㎡	2920원	1990원	3800㎡

**경매전문회사 '직접모집'**  
· 실전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40세미만 남녀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